

ISSUE
10

artnow

by
Noblesse



ESPRIT DIOR | 디올 정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고 잘 감상할 수 있을까? 사진업계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 이 질문에 답했다.



"다르게 보고, 관찰하라"

구본창(사진작가)

사진을 찍는 행위의 출발점은 대상에 대한 호기심 어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기심에서 출발해 관심을 갖게 되면 소유하고 싶고 대상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은 사진가로서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싶거나 주제를 가지고 작업할 경우 목적에 따라 촬영하기도 하죠.

평범한 대상을 다르게 찍고 싶을 때, 사물을 보는 '남다른 시각'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사물을 관찰하는 충분한 시간뿐 아니라 특별한 감각이 있어야 해요. 르네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리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고 써놓은 작품이 있죠. 어려서부터 배운 당연한 것에 의문을 던지고 색다른 관점으로 다시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촬영 대상이 정해졌을 때 좀 더 잘 찍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다가가야 할까요? 촬영할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대상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진정으로 꿰뚫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창 선생님은 주로 어떤 사물이 '찍고 싶은 대상'이죠? '할 말이 있는데 말 못하는 대상물'이예요.

정물을 촬영할 때와 그 외의 대상을 촬영할 때 시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아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만큼 다르죠. 사람이나 풍경, 빛이 달라지면서 대상의 호소력이 달라지니 민첩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기기는 점점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담으며 발전하는데,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하고 싶은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적절한 색 온도에 대한 이해 같은 사진의 기본 요소를 알아야 해요. 지식이 바탕이 되면 다른 수준의 작품이 나오죠.

구도만 잘 잡아도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있어 보이는 구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Less is more'라고 말하고 싶네요. 앵글에서 군더더기를 없애세요.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눌러야 하는 순간의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지해야 할까요? 마음의 떨림이 올 때가 있어요. 첫눈에 반한다고 하듯 대상물에 대한 그런 끌림이 있어야 만족할 만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에 기준을 둘 수 있을까요? 우연히 멋진 한 장의 사진을 얻었다고 잘 찍는다고 말할 순 없겠죠. 지속적으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었느냐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Koo, Bohn-Chang

구본창



어떠한 빛도 절대 같은 빛은 없다. 서로 다른 빛은 우리 주변의 사물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 햇빛이 밝게 빛나는 날엔 밝은 대로, 흐리고 어두운 날엔 어두컴컴한 대로 대상물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빛난다. 구본창 작가가 유학 시절 함부르크의 운하에 건너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사된 모습을 촬영한 작품이다. 때마침 운하를 지나간 오리로 인한 새로운 파동과 회화적 색감이 감동을 선사한다.

노이에발, 함부르크의 운하, 1981